

check ME up!

2026년 8월 1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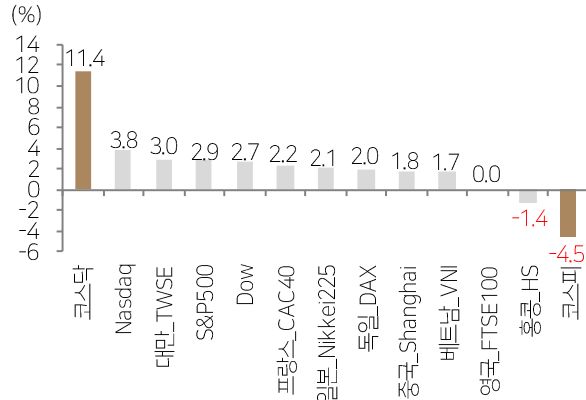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I . Weekly Review	2p
II . 경제지표 Preview	3p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IV.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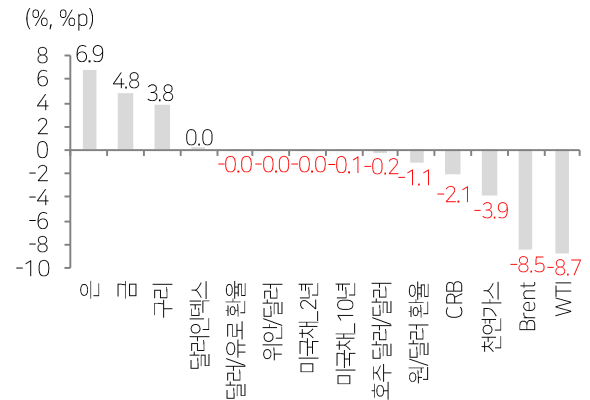
I.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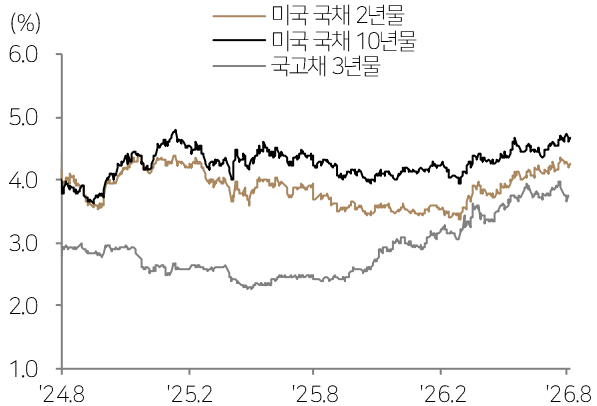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7/31일 대비 8/6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Note: 수익률은 7/31일 대비 8/6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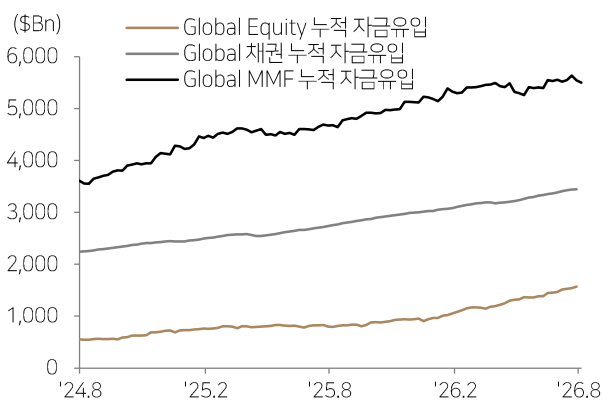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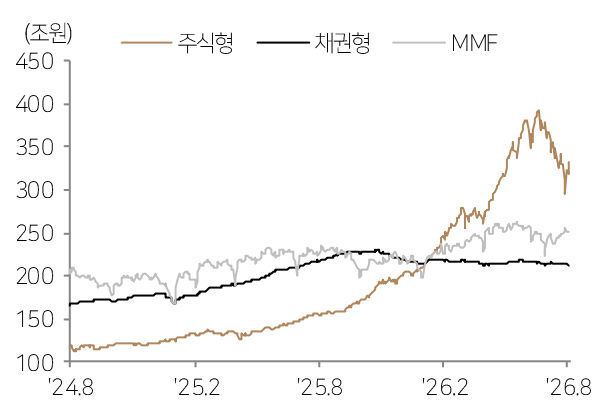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II. 경제지표 Preview

- 직전일 연준 리사록 이사가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필요 시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 현재 연준 내부의 정책 포커스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유가 하락과 맞물리며 시중 금리의 가시적인 상방 압력은 크지 않았지만, 다음 주 발표될 물가 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 코어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금리 및 증시 변동성에 영향을 줄 여지
- 일본의 물가지표 역시 확인해야 할 변수. 지난 달 금정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 마일 공조로 엔화 약세를 일단 진정시켜 둔 상황이고, 다음 회의까지 확인되는 물가지표들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경우 점진적 인상 기대가 유지될 수 있으나, 물가 서프라이즈 발생 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8-09	중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3.8	4.1
2026-08-09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8	1.0
2026-08-11	한국	8월 수출 10일간	%yoy	-	53.9
2026-08-11	한국	8월 수입 10일간	%yoy	-	17.4
2026-08-12	한국	7월 실업률	%	-	2.7
2026-08-12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4	3.5
2026-08-13	일본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7.1
2026-08-13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4.8	5.5
2026-08-14	유로존	2분기(2차) GDP SA	%yoy	1.0	1.0
2026-08-14	미국	7월(속보) 소매판매	%mom	0.2	0.2
2026-08-14	미국	8월(잠정)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4.1	55.2
2026-08-14	미국	8월(잠정)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4.2	4.2
2026-08-14	미국	8월(잠정)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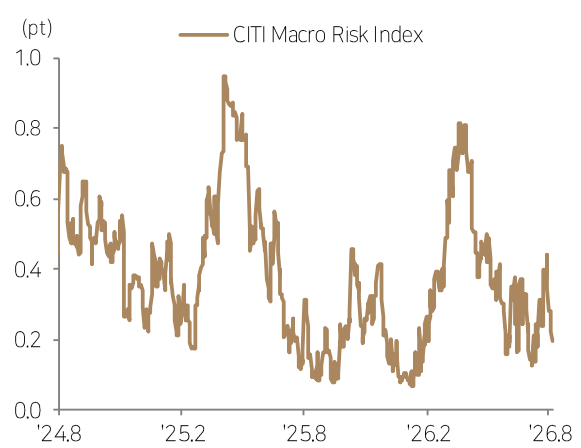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8/11	한국	중	반도체 특별법 시행	-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전까지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이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본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 - 최근 반도체 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생태계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위원회 구성, 클러스터 지정, 산업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음
8/12	글로벌	중	MSCI 분기 리뷰	8월 리뷰는 12일(한국 13일 아침)에 편/출입 결과 발표 예정이며, 8월 말일 장 마감 이후 리밸런싱, 9월 1일부터 변경된 지수 구성이 적용 - 편입/편출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수급인 만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도 편입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전략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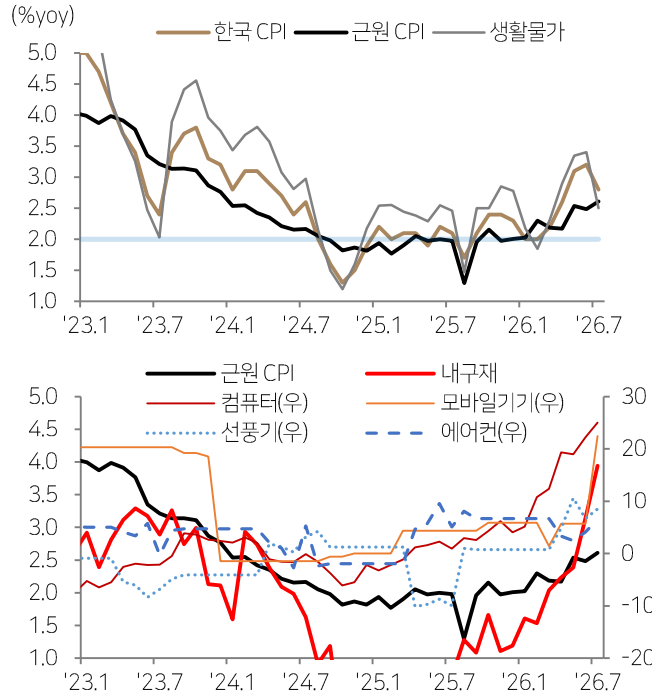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7/31~08/06) 증시 동향	- KOSPI(-4.5%) 하락, KOSDAQ(11.4%) 상승. KOSPI는 비철,목재(+20.5%), 건설,건축관련(+16.9%), 기계(+12.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12.2%), 보험(-2%), 증권(-0.1%) 업종 하락. 코스피는 지난주 사상 최대 일간 상승률 기록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키옥시아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하락 출발. 이후 빅테크 호실적 발표, 미·이란 협상 가능성 부각, 반도체 낙관 전망 등에 주종 반등 시도했으나,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연동되며 재차 변동성 확대. 금주 반도체 외 업종으로 순환매 유입, 코스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 - DOW(+2.7%), S&P500(+2.9%), NASDAQ(+3.8%) 상승.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국제유가와 국제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연이은 주요 기업 호실적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 주종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에 변동성 확대됐으나, 전통산업주와 경기순환주는 국제금리 안정에 강세를 이어가며 순환매 장세가 전개됨. 주 후반에는 차익실현과 반발매수 혼재하며 업종별 차별화 흐름을 보임. 금주 다우·S&P500 지수는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차주 (08/10~08/14) 증시 전망	7월 마지막주 급락 충격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흐름이지만 일간 발생하는 변동성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도체 대표주들 역시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 보다는 매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 아직 불안감은 남아 있지만, 확인하고자 했던 소재들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유가는 다시 70\$대에 진입했고, 월말/월초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는 적어도 CapEx 기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인되고 있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월말 4.7%대에서 4.6%대로 회귀했고, 한국 3년물도 3.7%대 하향.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프리미엄도 일단 고점이 확인. 반면 국내 증시 이익 전망치는 8월에도 상향 흐름 지속. 기존 하락 유발 소재들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적어도 극단적 저평가 수준에서 정상 밸류에이션 수준까지는 회복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1차 목표는 7,200pt 선. 비 반도체 업종의 PER은 다시 12배 대 진입(당사 추정) 이익과 멀티플 정상 구간 회귀 관점이라면 반도체 비중 유지 필요. 최근 3주 간 극단적 변동성 상황 속에서 실적 전망치 개선이 진행된 업종은 반도체 외에 조선, 기계, 지주 은행, 보험 등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증가 대비 금주 목요일 증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IV. Key Chart & 핵심지표

엇갈린 물가지표, 백투백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Source: 연합뉴스포맷,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신현승 총재가 제시했던 통화정책 핵심 판단 변수 중 하나인 근원/생활물가 상승률은 엇갈린 결과. 7월 근원물가 YoY는 2.6%로 6월(2.5%) 대비 상승폭 확대. 반면 생활물가 YoY는 2.5%로 6월(3.4%) 대비 하락
- 근원물가 상승을 품목 별 분해해 보면 상승폭이 컸던 TOP 20개 품목 중 반도체 가격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간접 효과, 계절 요인과 관련된 품목이 11개. 수요 견인 측면에서 민감도가 높은 내구재 물가 상승은 부담스러우나 이 역시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 7월 근원물가 상승을 온전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강화의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7월 기대인플레이션은 2.7%로 6월(2.8%) 대비 0.1%p 하락. 4월 중동전쟁 여파로 2.9%까지 상승한 뒤 완화 흐름. 한편, 7월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과 7월말 이후 재개된 유가 안정, 7월 기대인플레이션 앵커링 속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8월 기대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물가지표 발표 이후 백투백 인상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7월, 금리 추가 상승을 버텨낸 금 가격의 상승세가 진행 중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8월 금 가격 반등세가 가시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기조 속, 연초 5,400\$선까지 상승했던 금 가격은 미국채 금리(실질/명목)가 상승 추세에 진입한 2월 말부터 하락 추세를 진행. 7월엔 일시적으로 4,000\$선도 하회. 그러나 금리의 상승 흐름이 여타 자산군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7월 금가격은 지지대를 형성하고, 8월 가파른 반등을 시현 중
- 금은 인플레이션 헷지 상품이자 금리 하락 수혜 자산. 상반기 전쟁 확전에 따른 금리 상방 압력과 함께 추세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그 방증. 그러나 명목/실질 금리 동반 상승이 진행된 7월 금 가격이 추가 하락이 제한됐고, 8월 소폭 금리 하락에 탄력적으로 반등. 이는 실질금리 상승 부담이 일정 부분 반영된 가운데, 적어도 단기로는 금리의 정점 부근 도달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음. 물론 실질금리 관점에서 보다 보수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의 정체 움직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나마 금리의 상단 부근에 도달했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음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